

제주사회복지신문

>2017년 1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11호

사진으로 보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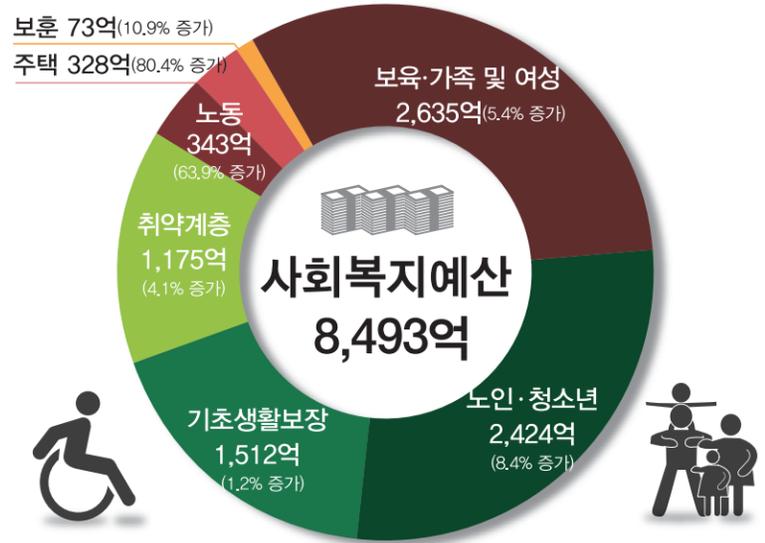


“김장으로 따뜻한 사랑 나눠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최하고 제주은행(은행장 이동대)과 신한금융그룹(회장 한동우)이 후원한 '2016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지난 달 3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앞마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제주은행·신한금융그룹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담근 김치 900포기는 청소년시설, 도내 저소득층 가정, 복지회관 등에 전달됐다.

올해 도 사회복지예산 8,493억

지난해보다 677억 증가... 전체 예산 대비 19.1%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이 지난해 보다 8.67% 늘어난 8493억으로 편성됐다. 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지난해와 차이가 없는 19.1%로 나타났다.

올해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 4조 4493억 가운데 8493억으로 19.1%를 차지해 기능분야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난해 보다 8.67% 상승한 677억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이 전년보다 8.45% 증가한 사실을 놓고 보면 복지 예산이 크게 상승했다고 보

기 힘들다.

또한 전체 예산대비 19.1%라는 수치는 전국 17개 시도평균 26.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20%를 넘지 않는 곳은 강원도를 제외한 제주도가 유일하다.

분야별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1512억(18억 증가) ▲취약계층지원 1175억(46억 증가) ▲보육·가족 및 여성 2635억(135억 증가) ▲노동 343억(133억 증가) ▲보훈 73억(7억 증가) ▲주택 328억(146억 증가)으로 나타났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 정유년 축사, 신년사
- 특집 7면
 - JDC기적의 편지, 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
- 사회복지소식 4~5면
 - 제주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 기획 8면
 - 시설탐방(83) -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영예로운 수상과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도문화상 체육부문



부형중
(부회장)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이사장 당선

대통령표창



고관용
(평생회원)

대통령표창



김순효
(평생회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안창준
(평생회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 일동

신년사

사회복지창의센터 설치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희망찬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 붉은 닭의 기운으로 활력과 희망이 샘솟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가상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복지정책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창의센터를 설치하여 틈새 취약계층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맞춤형 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과 어린이, 여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운영에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희망의 정유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는 길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민 중심 '공감·소통·창조의정' 구현



신관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 지난 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대통령 탄핵 등 안 좋은 일들은 붉은 닭의 힘찬 울음소리에 다 묻고 새해에는 기쁘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공행공반(空行空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돌아올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새해에는 '공행공반(空行空返)'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부단히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올 한해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더욱 많이 뿌려질 수 있도록 도민 중심의 '공감·소통·창조의정'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협력하는 교육문화 실현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회복지인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사회복지인 여러분

분을 비롯한 도민 사회의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제주교육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 도민 여러분께 더 큰 희망과 결실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과 장애학생, 우

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데도 더욱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아 교육에 바라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도 사회복지인 여러분께서 제주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2017년 정유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정신 실천



고치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존경하는 사회복지가족 여러분! 지난 해 사회복지현장 곳곳에서 애써주신 덕분에 제주복지 공동체는 더욱 튼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정의롭기를 소망

합니다. 정치적 이슈에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어 지난 연말부터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의 열기가 예년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필요한 것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입니다. 도덕의

위기, 신뢰의 붕괴, 양심의 실종을 우려하는 시대를 살려내는 방법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지키고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지의 확대'를 통해 누구에게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은 사회복지가족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새해에는 이를 위해 협력하고 작은 성과나마 우리의 결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인해 사회복지가족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 축시

우리, 날개를 달자

꼬~끼~오 꼬~끼~오~
빨간 닭의 해, 정유년이 밝았다.
신새벽에 깨어 홀로 저 산등성이에 올라, 목 뻐어 울었구나.

병신년, 지난 한 해, 우리들 얼마나 빔에 목말랐나.
그래, 눈 크게 뜨고 먼 곳으로 귀 세웠잖느냐.
여러 해 홀어 온 뒤를 뒤쫓는 소리에 태곳적
어둠이 훑훑훑 불라 떨어지고,
너라 나 우리들 뚝뚝 따쫓게 흐르는 물소리.

짧은 치열한 체온으로 알을 품는다.
세상을 품는다, 사랑을 품는다.
가산을 털어내고 혼란을 추스르고 모순을 짚짚하는,
짧아겐 힘이 있다.
품음으로 아스라이 열리는 선량한 사람의 세상.

짧아, 네가 여는 여명의 시간을 기다려
희망이 내길로 살은 날갯짓을 보느냐.
네가 앉았던 시간,
네가 머물렀던 공간으로 피어나는 꽃은
얼마나 어여쁠 것이냐.

눈부시다. 이제, 우리 앞으로 닭의 해,
정유년이 열렸다.
네가 피어올린 예지와 여명의,
그 모든 빛을 이곳으로 모으라. 모으라, 모으라.
친구여, 날개를 달자.
그리하여 빛 속으로 날아오르라, 태양의 새여!



東甫 김길웅
시인 · 수필가

지역복지사업 평가 제주도 '최우수상'

신설·변경제도 부문 대상, 부정수급환수 부문 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6년 지역복지사업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달 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

2016년 지역복지사업 복지재정 효율화 부문 중 신설·변경제도 사전협의 및 이행분야에서 '대상'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4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또한 복지재정 효율화 부문 중 부정수급환수와 확인조사 이행분야에서 '최우수'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분야별 복지사업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정책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시상분야를 탄력



적으로 조정, 매해 시상해 왔다.

올해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재정 효율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3개 부문을 평가했으며 제주도는 복지재정 효율화 부문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을 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복지전달체계개편 부문에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

는 등 3개 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나용해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장은 "앞으로 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12월 기탁 현황

- ▲금강수산물유통=수산물 40kg ▲금강축산물유통=축산물 276kg ▲김치원=김치 25kg ▲꽃비나리는뜨락=떡 316개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 214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 97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3,986개 ▲모양=제과류 47봉 ▲빠라빠빵=식빵 168봉 ▲수은교 청정봉사단=김치 등 565kg ▲신화유통주식회사=고추장등 437개 ▲암암영농조합법인=빵 61봉 ▲유진상사=오투기식품 2,967개 ▲이든이네=건멸치 9kg ▲자연드림 이도점=빵 248봉 ▲제이엠=간식류 1,610세트 ▲제주보리촌=보리빵 480개 ▲제주은행=김치 308k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주스 200개 ▲갯어클락=식빵 22봉 ▲파리바게트 동광초점=빵 101봉 ▲푸른제주=초콜릿 200kg ▲행복나눔마트 노형점=주방세제 80kg ▲행복나눔마트 오라점=빵 406봉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6년 1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88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5,000	0
자원봉사후원	350,000	350,000
복지사업후원	935,000	565,000
푸드마켓후원	3,294,507	91,260

* 후원자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사랑, 봉사, 함께하는 세상!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2016년 자원봉사 만남의 날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달 3일 제주시 아스타 호텔 연회장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체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사랑, 봉사, 함께하는 세상!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를 개최했다(사진).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

위원장, 고태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격려사를 전했다.

행사는 더희망 제주의 우쿨렐레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내·외빈 축사, 자원봉사자 소개, 자원봉사자 사례발표, 모범봉사자 표창 수여,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진행된 자원봉사사례발표에서 최연소 사례발표자로 나선 작은세상봉사단의 강현규(15) 학생은 "3년전 엄마를 따라 봉사활동을 할때는 봉사가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이제는 봉사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라며 "항상 바른길로 인도해 주시는 엄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 관련기사 6면에 이어짐

온누리봉사회 창립 24주년 기념행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봉사단체 온누리봉사회(회장 김옥화)는 지난 달 19일 오라동 감나무집에서 창립 24주년 기념식 행사를 진행했다.

자원봉사연합회 임원,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이기영 회원이 우수봉사자로 선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



의회장상을 수여 받았다. 온누리 봉사회는 밑반찬 자원봉사, 사회복지시설봉사 등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뉴-제주 라이온스, 푸드뱅크에 쌀 기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광역푸드뱅크는 지난 달 5일 협의회 앞마당에서 뉴-제주라이온스클럽(회장 부문복)으

로부터 쌀(700만원 상당)을 기탁받았다(사진). 기부받은 쌀은 기초푸드마켓을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제주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노형동 KT&G본부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9일 노형동 KT&G 제주본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 운영을 맡게 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센터장 1인, 개인별지원팀 3인, 권익옹호팀원 1인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방훈 정무부지사,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윤종술 대표 등 관계기관 대표, 장애인 단체 및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케익을 자르고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 재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서비스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등 권익옹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에 2016년 10월 기준 총인구 65만 8486명 가운데 등록장애인 3만413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3457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다.



농협 제주본부, 농촌 사랑드림 PC 전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는 지난 달 9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바람소리홀에서 '농촌 사랑드림 PC' 전달식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전달식은 도내 읍·면 지역 소재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선정해 총 10대의 PC(1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농촌 사랑드림 PC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정보생활 소외계층에게 IT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협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다.



제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허찬란)는 지난 달 19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6 아이돌봄 지원사업 포상 수여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사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이번 포상은 전국 217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 등 서비스 성과 △서비스 연계와 안전관리의 적절성 △아이돌보미 확보 △사업수행 능



력 등 4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여 최우수 기관 1곳, 우수기관 9곳을 선정해 진행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

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지방법원,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제주지방법원(원장 이승영) 삼다봉사단은 지난 달 20일 용담 1동·2동, 조천읍 등 저소득 가정 4가구에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나눔은 어려운 이웃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구당 연탄 210장과 쌀, 라면 등 생

활용품 등으로 구성됐다. 이승영 법원장은 "오늘처럼 작은 봉사활동을 통한 우리의 도움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일을 잡아라'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향)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주지역 농산품을 이용한 6차 산업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일을 잡아라'를 지난 8월부터 진행하고 다(사진).

프로그램은 제주특산물 유기농 청귤, 감귤, 키위, 모과 등에 유기농 설탕을 첨가하여 수제 유기농 차와 잼, 주스를 만드는 작업훈련으로 세척, 썰기, 끓이기 등 모든 과정에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만든 수제품들은 바자회,



장터, 프리마켓 등을 통해 판매하고 기관 및 사업홍보에 이용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발달장애인의 작업준비 및 사회적응,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 유기농 제품과 제주지역 자

원을 바탕으로 6차 산업 분야의 직무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희망나래활동센터는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쿠키·도토리갈국수·베이커리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도장애인부모회, 장애인가족한마당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박영재)는 지난 달 2일 메종글래드제주 컨벤션홀에서 도내 장애인가족, 장애아돌보미, 장애인도우미, 활동보조인, 후원자 등 4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사업보고대회 및 장애인가족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장애인 발전

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부모회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수상자 명단 △김애옥 제주특별자치도지사표창패 △김도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표창장 △배주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표창장 △조지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감사패

소/식/마/당

'해피 바이러스 UP'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지난 달 17일 사레관리대상 11가정 33명을 대상으로 '해피 바이러스 UP'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초콜릿 랜드, 플레이 케이팝, 헬로키티 아일랜드 등 지역사회 관광지 체험으로 이뤄진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에게 사회적응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해 가족기능회복에 도움을 줬다.

김녕지역아동센터 꿈축제 실시



김녕행복한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형자)는 지난 11월 12일 '제2회 지역아동센터 꿈 축제'를 진행했다.

관내 지역 아동 및 학부모 120여 명이 참가한 꿈 축제는 아동들의 작품전시회와 함께 슈링클스공예, 종이팽이 만들기,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 체험 부스로 구성됐다. 또 아동센터 이용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추장만들기 체험도 실시했다.

다문화 이해교육 진행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정우)는 지난달 3일 제주시 후원으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다문화이해교육 '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를 진행했다.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키르기스스탄, 중국, 네팔, 캄보디아, 몽골 등 다문화 국가 소개와 나라별 홍보부스가 운영돼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

봉아름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봉아름지역아동센터(시설장 임진희)는 지난 11월 24일 한전KPS(주) 제주사업소(소장 이승귀)로부터 아동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자금 18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원철)를 통해 후원받았다.

이번 환경개선사업으로 센터내 프로그램실을 확장해 센터 아동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종강식 진행



서귀포시노인복지관(관장 김재경)은 지난 달 16일 '사회교육프로그램 종강식 및 발표회'를 진행했다.

지역사회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작품들(아로마 테라, 압화공예, 서예작품)을 전시하고 기타, 색소폰, 에어로빅, 장구, 스포츠댄스, 중국어, 가요교실 등 그 동안 배운 장기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립 8주년 기념행사 개최



참좋은지역아동센터(센터장 황의식)는 지난 달 3일 '설립 8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주민과 후원인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도의회 김태석 의원과 월랑마을노인회 현공화 회장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기념식은 센터 아동들이 준비한 '꿈이 있는 아이들의 발표회'를 통해 바이올린 연주, 한국무용, 방송댄스 등으로 설립 8주년을 축하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애덕의 집(원장 현성훈)은 지난 11월 26일 신성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제1회 나누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나누미'란 애덕의 집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자원봉사자와 종사자, 이용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 우수봉사자 시상식, 재능기부 협약식, 레크레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곱닥한 세상 만들기



유진단기거주시설(원장 최은미)은 지난 11월 26~27일 양일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꾸욱 눌러 찍어 곱닥한 세상 만들기' 사진전시회를 실시했다.

유진단기거주시설은 지난 5월부터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사진동아리 활동을 진행했고 전시회는 그 동안 출사를 통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찍은 작품을 모아 이뤄졌다.

사랑의 자장면 나눔



정통중화요리 아래향(대표 이현석)은 지난 달 12일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의 장애인 및 직원들을 아래향으로 초대해 자장면 120여 인분을 제공했다.

매월 정기적으로 자장면을 후원하는 이 대표는 "정혜재활원 장애인과 직원들이 자장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장면 후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흔디모영 훈마음 축제



제주시니어클럽(관장 황영애)은 지난 달 7일 제주시민회관에서 '흔디모영 훈마음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2016년도 사업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원로임에도 어린이학습을 지도하는 안창습(92)노인에 대한 제주시장상 등 7개 기관장에 대한 시상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공로패 전달이 진행됐다.

'우리끼리 두드림' 결과 발표회



제주케어하우스(원장 홍영진)는 2016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우리끼리 두드림' 결과 발표회를 제주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진행했다.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원하는 '우리끼리 두드림'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시설거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1회 난타와 국악 수업으로 이뤄지며 서로 소통하는 법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목적을 둔다.

'제주사랑 말 사랑' 승마 체험



함덕지역아동센터(센터장 명혜숙)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3일까지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지원으로 '제주 사랑 말 사랑'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5회기에 걸쳐 진행했다.

거문오름승마장에서 진행된 이번 체험을 통해 아동들은 기본적인 승마 기술을 배웠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승마를 통해 대학까지 가고 싶다"고 바람을 말했다.

시론

행복센터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행복센터가 진정 도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본다. ‘행복센터’는 ‘행정·복지센터’의 줄임말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복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홍동 주민센터’가 ‘서홍동 행정복지센터(서홍동 행복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행복센터의 성공 여부

행복센터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의미가 크다. 즉, 읍면동이 복지 허브의 중심이 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찾아가는 복지 구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행복센터의 추진은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읍면동복지허브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바라는 마음이 간

절하다. 첫째, 현 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사무소’, ‘보건복지사무소’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시도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센터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간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현실에 입각한 정책설계와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민센터는 행정자치부 소관인데, 실제 복지업무 추진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중앙부처간 협조체제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인력과 조직 등 중앙부처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으나 중앙부처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소위 율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행복센터를 위한 조건

주민센터를 행복센터로 개편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공무원 인

력에 대한 순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 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또한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다문화 가정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높은 자살율 등 대한민국의 복지현실을 되짚어보아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읍면동이 ‘행복센터’로 체제를 개편하고, 주민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복지서비스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기고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희망을 나눠드립니다



김주경
제주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 따뜻하고 정감있는 이 명칭은 신규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지금의 담당명이다. 이름 그대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면서 복지를 지원하는 업무이다.

처음 발령받았던 7월은 혹서기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던 때였다. 이럴때 더위와 더욱 힘들게 싸우고 있는 분들이 컨테이너, 창고 등 취약가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었다. 걱정이 되어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뜨거운 햇빛을 그대로 흡

수하는 컨테이너 등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시며 몹시 지친 얼굴을 띠고 계셨다. 남은 여름이 우려되어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지붕과 벽면에 차광막을 설치해 드리기로 계획한 후 며칠 뒤 실행에 옮겼다.

그중 한 아주머니는 나를 보며 “아이고 우리 딸 같네 고마워라.” 라고 말씀하시며 몇년 전 사망한 딸이 생각나시는 듯 눈시울을 붉혔다. 나 또한, 어르신들을 보면서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나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난 10월, 몇 년 만의 강한 태풍인 차바가 내습했을 때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관리하는 사례관리 대상자들과 취약가구 거주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우려가 됐다.

즉시 대상자분들께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방문을 부탁드린 후 희망복지지원단에서도 방

문하여 어르신들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누추한 우리들까지 신경써줘서 고맙다며 자신이 가지고있는 두유나 초코파이를 손에 쥐어주셨다. 소박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고마움 표현인 것이다. 그 마음이 전달되어 우리 또한 감사하고 뿌듯했다.

날씨가 추운 동절기가 되면 간간히 뉴스에서 고독사로 사망한 이웃의 소식을 접하곤 한다. 점점더 추워져가는 요즘, 많은 어르신들과 홀로사는 이웃들이 우리의 관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럴때, 단 5분이라도 주변 이웃에게 얼굴도장 찍으며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그 5분의 관심이 우리 제주사회를 따뜻하게 밝혀줄 것이다. 이를 통해 이번겨울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더욱 따뜻한 계절이 되었으면 한다.

칼럼

숲과 함께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우주 밖에서 지구를 들여다보면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구는 수많은 생명체를 지니고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생명체들이 뿜어내는 힘은 푸른빛으로 발산한다. 그래서 칼 세이건은 지구를 초록점이라고 했다.

지구는 마치 테라리움 속의 세계처럼 보인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맑은 공기와 물, 햇빛, 토양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생명은 수 십 억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들은 서로 주고받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면면이 이어오고 있다. 그런 생명의 흔적들이 바로 숲이다.

숲은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곳이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자라는 거대한 나무들, 돌 틈 사이에서 얼굴 내민 야생화, 들판을 뛰노는 야생동물, 사각사각 나뭇잎 먹는 애벌레들, 그리고 미생물을 분해하는 박테리아에 이르기까지 숲은 수많은 생명들의 보금자리이며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숲은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곳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인류는 식물의 탄생보다 훨씬 후인 지금부터 약 500백만 년 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첫 출발지가 바로 숲이다. 숲으로부터 사람의 삶은 시작됐다. 그리고 오랜 기간 숲에서 보내며 숲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숲을 좋아하게 되고 숲을 접하면 어머니 품처럼 포근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사람이 사는 환경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숲이 아닌 불빛 찬란한 도시환경이다. 내 뿜는 대기 오염, 요란한 네온사인, 우뚝우뚝 솟은 콘크리트 아파트, 시끄러운 소음 등... 사람들은 이 같은 자극적인 생활문화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은 결국 스트레스 공간이 되고 있다. 스트레스는 몸의 항상성을 깨뜨리고 만성적인 질환을 낳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 사람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의 표본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숲이라는 공간을 재인식해야 한다.

그런 마음에서 새해에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위해 쾌적함이 넘치는 숲을 벗 삼아 산림치유를 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 본다.



한영조
전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기적의 편지로 76명 소원 이뤄지다

모두 185통 접수... 편지에는 갖가지 사연 많아

JDC 5천만원 후원

고사리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편지 속의 소원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어떨까. 마치 동화처럼 믿기 어려운 이 이야기가 도내 저소득 및 사회복지시설 아동·청소년들에게 이뤄졌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가 후원하고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기적의 편지' 사업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기적의 편지' 사업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개인적 바람을 담은 '손편지'를

보내오면 이를 심사해 소원을 이뤄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접수기간동안 총 185통의 편지가 접수됐다.

5명의 심사위원이 소원내용의 진실성, 개인의 성장 및 가족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효과성, 지원물품 용도의 타당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76통의 편지를 선정해 소원을 이루어줬다.

접수된 소원 내용을 살펴보면 컴퓨터, 노트북, 문제집, 책상, 교복, 학원비지원 등 학업과 관련된 용품과 바이올린, 첼로, 작곡용 키보드 등 음악적 꿈을 키울 수 있는 악기류, 겨울철 의류,

운동화, 문구·완구류 등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가정 경제적 형편상 가지기 힘든 물품들이 사연과 함께 빼곡히 적혀 있었다.

'기적의 편지' 사업 담당자는 "사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느 보통 아이들이 누려야 할 것임에도 가정형편을 걱정하는 마음에 표현하기 어려웠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먹먹해진다"라며 "소원을 이룬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기적의 편지로 선정된 76통의 소원 물품은 지난 크리스마스 연말 기간을 통해 개인별로 전달됐다.



「2016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봉사활동 사례발표 ①

봉사란 무엇일까?



강현규

작은세상봉사단(오현중2)

처음 봉사라는 걸 접하게 된 건 6학년 때 엄마의 권유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렸

고 봉사가 뭔지도 몰랐기에 봉사같은 걸 꼭 해야하는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다닌 지 3년쯤 지난 지금 제 나름대로 봉사를 해야하는 이유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봉사를 엄마를 따라다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면 할수록 남을 돕고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 생각했고 아주 작은 것도 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일을 해도 도움이 될까?' 라고 고민하기 전에 먼저 실천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봉사는 지역공동체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세계로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곳곳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중1때까지의 제 꿈은 사실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이 되어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봉사라는 것에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의사로 꿈이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봉사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고민하며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봉사실적을 채워야하는 것이 있는데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봉사는 안하는게 어떨지요? 진정한 봉사는 무엇인지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함께 봉사 다니면서 도움을 주시는 작은 세상봉사단 이모·삼촌 그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바른 생각으로 이끌어 주는 엄마, 사랑합니다!

감사한 아침



홍경희

온누리봉사회

30여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였다. 3자녀를 키우며 워킹맘으로 앞만 보

고 살아왔다. 이기는 것만이 행복인 줄 알고 목표를 채우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하였다. 삶이 늘 바쁘고 바쁘다는 핑계로 내 이웃을 외면하고 살아왔다.

퇴직 후 온누리 봉사회에 밑반찬 만들기 봉사를 하게 되었다.

이제 재음보다는 나눔이 진정한 행복임을 온누리 나눔터에서 온몸으로 느낀다. 나눔터의 봉사는 늘 힘들고

지치다. 집에 가서 어깨에 파스를 부치는 날도 있다. 돈 한푼 생기는 일도 아니다. 하지만 즐겁고 행복하다.

삶의 행복이란 매우 가깝고 쉬운데 있는 것 같다.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더 불어 살아갈 때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나누면 나눌수록 삶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고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기쁨은 갑절로 늘어난다.

봉사를 시작한지 1년이 조금 넘었다. 내가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오래도록 나눔을 실천해온 사회복지협의회 여러 봉사자님들이 진정으로 존경스럽고 고맙다. 그리고 늦게나마 봉사대열에 인연을 맺어 아름다운 실천으로 살아갈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

요즘 권력형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대한민국 국민임이 부끄럽다. 나눔의 행복을 모르고 욕심만 채우며 부의 축적으로 행복을 아가는 대한민국의 민낯

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온누리에 퍼져서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온누리 봉사자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염원해본다.

늦가을 벌이 드는 창가에서 이 소감문을 쓰며 낙엽을 떨어뜨린 빛나무의 빈가지를 오래도록 바라본다. 욕심을 버리고 비우고 나누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나무는 오래 전부터 말해왔는데 나는 오늘 아침 이 소감문을 쓰며 알아차렸다.

감사한 아침이다.

시설탐방

(83)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장애인가족 애로사항 위해 야간돌봄사업 실시



▲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례관리, 역량강화, 가족휴식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기다렸던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가졌다면 그 가정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덕수, 이하 센터)의 설립과 목적을 묻는 질문에 최 센터장이 던진 질문이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역량강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형태로 서귀포시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센터의 설립 배경에 대한 답이 위 질문에 들어있다.

11년 전, 최덕수 센터장을 포함한 장애아를 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모여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를 창립했다. 부모회는 장애아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식개선 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현재까지 하고 있다.

부모회 활동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와 같은 중증 지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 장애인가족들의 삶도 살피야 함을 깨닫게 된다.

이에 장애인가족들의 사례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기관의 필요성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2011년 6월 센터가 설립되고 서귀포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센터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은 사례관리사업과 역량강화사업이다.

다른 장애와 달리 발달장애는 사람의 개성만큼이나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때문에 신체적 장애처럼 보편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최근까지 발달장애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미비해 찾아볼 수 있는 사료도 부족하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대상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한 연구적 자료로도 사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발달장애는 지속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특수학교에 다니며 상당한 호전을 보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집에 있었더니 다시 처음의 상태로 퇴보했다.

센터는 이런 특수성에 기인해 발달장애인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예품 만들기, 음식 만들기, 난타, 뉴스포츠, 음악밴드 등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귀포시 지역예술인과 연계해 문화·예술 창작활동 프로그램 ‘재미난 학교’를 기획 운영 준비 중이다.

그 외, 장애인가족의 순기능 회복을 위한 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야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에 착안한 야간돌봄사업, 비슷한 경험을 한 동료부모가 자신의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부모동료상담가사업,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교육 등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영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평가와 예산을 들었다.

일례로 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진행하면 발달장애인이 어디로 될지 모르고 일반인처럼 생

리현상조절이 힘들어 장애인 1명당 2인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한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려 해도 예산 때문에 김밥이나 도시락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예산 확충을 요구하면 행정시에서는 “타 장애인 시설은 동일한 금액으로 아무런 말이 없는데 왜 부족하냐?”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를 내리는 부분들이 어려움이라 했다.

센터가 나아갈 방향과 포부를 묻는 질문에 최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이 집에서 나와 생활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과 스스로 경제적자립을 할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성인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립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38 상속 이야기(2)

도장이 빠진 유언장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사회사업가 A씨는 백억대의 유산을 남기고 2003년경 사망했다.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와 배우자가 없었

기 때문에 그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는 상황에서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A씨의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유언장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Y 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거액의 재산을 놓고 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먼저 우리 민법의 유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하고(유언의 요식성, 제1060조)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하며(제1065조) 그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유효하다(제1066조).

그런데 A씨는 유언장을 잘 작성해 놓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지 않은 점에서 문제

가 생긴 것이다.

생전에도 본인의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혀온 A씨이지만 이미 사망하여 진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언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학교측과 법정 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유언장은 무효이므로 재산은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유족들의 주장이 맞선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은 결국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도장 없는 유언장 판례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

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 결정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

과연 A씨가 실수로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처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